

평 화 선 언

1945 년, 지금으로부터 78 년 전,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반 주민을 휘말리게 한 비참한 지상전이 펼쳐졌습니다.

90 일에 걸친 철의 폭풍은 섬에 있는 산의 모양을 바꾸고, 풍요로운 자연과 적지 않은 수의 문화유산을 파괴하였으며, 20 만여 명의 존귀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오키나와현민은 지상전에서뿐만 아니라, 남양군도의 인양선 격침, 학동 피난선의 희생, 10·10 공습, 학동이 전쟁에 동원된 점, 전쟁 말라리아를 비롯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6 월 23 일을 맞이할 때마다 전쟁 체험자가 말하는 전쟁의 부조리함과 잔혹함을, 후세에 계속해서 전해 온 실상과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온갖 전쟁을 증오하며 두 번 다시 오키나와를 전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의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전쟁 이후 27 년간의 미국 통치를 거쳐 1972 년에 본토에
복귀한 뒤로 51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일미군전용시설면적의 약 70.3 퍼센트가
오키나와현에 집중되어 항공기 소음을 비롯해 수질과 토양 등
환경오염, 항공기 사고, 미군·군무원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 등,
현민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현은 주오키나와미군기지의 추가적인
정리·축소, 일미지위협정의 근본적인 개선,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과 조기 폐쇄·반환, 헤노코 신기지
건설의 단념 등 기지 문제의 해결을 오래도록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12 월에 각의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정비계획”에 있어서, 오키나와의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서술을 다수 엿볼 수 있는 탓에, 가혹한 지상전의 기억과 맞물려
현민 사이에 커다란 불안이 생기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
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려 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정전이 실현되어, 평온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생명, 지금 남아있는 문화, 자연환경, 이것을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바람임이 분명함을 서로 확인해 갑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계국과의 평화적인 외교와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양성,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현민·국민의 이해와 행동이 지금보다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광, 경제,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평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국제교류를 통해 오키나와현이 쌓아 올린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고유의 지역 외교를 전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이곳 평화기념공원에 “오키나와 평화기념자료관”과 “평화의 초석”을 건설해 전쟁에 희생된 수많은 영령에게 애도를 표하며 오키나와 전투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다음 세대로 전하여 세계 항구 평화를 오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여러 세대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로 이어지는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에 주목한 <츄라우치나-풀뿌리 평화공헌상>이나, <오키나와 평화상>을 통해, 평화를 희구하는 “오키나와의 마음”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오키나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 사이의 가교, <만국의 진량万国の津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폭력이라는 신념을 관철한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오직 평화만이 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닌, 빈곤, 폭력, 인권 억압, 차별, 환경 파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평온하고 풍요로운 상태이며 오키나와현이 널리 알리는 “오키나와의 마음.치무구쿠루(오키나와 방언으로 “진심”)”에는 인간의 존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인간의 안전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더불어, 사람들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상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오키나와에서 세계로 평화의 배턴을 전달해 핵무기 폐기, 전쟁 포기, 항구 평화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